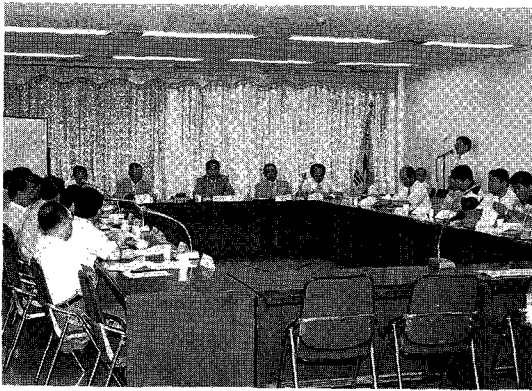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96 제 3차 이사회 개최 규정 일부 개정



본회 '96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 3월 이후 협회 주요업무 추진보고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부의안건에서는 △제규정 일부 개정안(안), △분회설립 승인(안), △일부 분회업무 정지 및 폐쇄(안), △정관개정에 따라 증원된 이사(6명) 선출, '96년부터 '99년까지 총회 구성시

대의원 정수 확정,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일정 조정(안) 등이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규정 일부 개정안 중 대의원 선출 규정에서는 '대의원 정수는 지역별로 회원 20명당 1명으로 하며 지역별로 20명 단위 초과 회원수가 11명부터 19명까지는 회원 20명으로 간주 처리한다'로 개정되었고, 지부 및 분회규정 개정에서는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에 각 1개소의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분회는 업종별(종계부화, 채란, 육계)로 관할구역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제한으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직제규정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종전에 총무부, 편집부, 홍보실, 닭경제능력검정소로 구성되었던 직제를 홍보실을 삭제하고 지도관리부(총무과, 지도조사과, 개량지도과)와 홍보부(편집과, 홍보과, 대외협력과) 및 닭경제능력검정소(검정과, 전산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업종별 분회설치 승인(안)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일대 35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양평육계분회(분회장 지충근)가 정식 분회로 승인 받았고, 일부 분회업무 정지 및 폐쇄에 있어서는 부평, 광주육계, 김포육계, 예산육계, 당진육계, 화성육계, 의정부육계분회가 운영부실 및 분회사무실 폐쇄로 업무 정지처분 조치가 취해졌으며 서태안분회는 서산육계분회(분회장 김종철)로 통합되었다. 또한 신규 6명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배정(안)에 따라 14대 추가 임원 선출에서는 유형재(제주지부), 이선열(전남지부), 손양근(경북지부), 차상협(종계), 윤형수(채란), 강문달(육계)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97 한국양계박람회 개최 일정이 9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신축 관계로 전시장 사용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행사일정이 변경되어 '97년 6월 24일에서 27일(4일간)까지로 잠정결정 되었다.

##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건의문 제출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는 지난 20일 각정당 대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등에 축산농가의 염원인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해 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현황설명, 대안, 적용시 문제점 검토, 효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황설명에서는 사료부가가치세 적용 농가 호수 비율은 80%인데 반해 사육두수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 강조하고 최근 사료값 인상율이 연 36%에 달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에 축산농민에 공급하는 사료를 포함시키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 '종란수입과 외래성 질병 유입' 설명회

7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란계의 경우 이례적으로 난가의 상승이 이루어 지면서 부화경기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종계입식수수



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입추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봄병아리의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육계의 경우는 병아리 가격이 200원 이하를 유지하면서 환우계군이 늘어 환우계가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8월 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남덕씨니테크 오경록 사장을 초청하여 최근 이루어 지고 있는 종란수입으로 인해 각종 질병의 유입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종란수입과 외래성 질병 유입"을 주제로 설명회가 있었으며,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 난가현실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개최

### 상인들과 난가현실화 조기정책 합의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는 지난 18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난가현실화를 위한 긴급협의회를 갖고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난가의 DC폭이 커 유통에 혼란을 가져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경기일원을 중심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난가에 대해 DC폭을 없애고 현실화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여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날 상인들도 참석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생산자측에서는 난가현실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참석한 상인측에서는 고시의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홍보기간이 짧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로의 이익을 찾기 위해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고 상황에 대처해 난가고시 현실화의 조기 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입추열기 과열



7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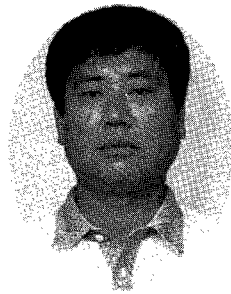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온다습한 갑작스런

무더위로 폐사가 다량 발생하면서도 소비부진이 심해 닭값이 800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데 병아리가격이 320원으로 고시되고는 있으나 일부에서는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싸게 거래되는가 하면 말복 이후에는 가격이 좋게 형성될 것이라는 떠도는 소문을 믿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추열기가 뜨거워 오히려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한편 최근 종란수입에 의해 생산과잉은 물론 외래성 질병 유입 우려성이 커짐에 따라 종란수입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회 양평육계분회 분회설립

양평일대 회원 35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회 양평육계분회(분회장 지충근)가 제3차 이사회에서 분회로 승인됨에 따라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 지충근 분회장

#### 임원명단

회장 : 지충근    총무 : 이시연

감사 : 김선호, 송철호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578-10

전화 : (0338) 71-5919